3 - AUG - 9
Copy ____ 1960

3

시사만화잡지

1956.3 (64)

활살

녀성들이여! 세계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독립을 위하여 앞으로!

오빠와 함께

—오빠! …
—복순아! 오늘이 있을 것을 꼭 믿었었지

—네가 벌써 대학생이라니…
—오빤 류학까지 마치고 오면서도 뭘…

—하마트면 너를 그냥 지나 보낼번 했었군
—오빠도 많은 공을 세웠군요

—동무의 기경 계획은?
—난 앞당겨서 자기 계획을 완수하겠어요 호미자루 들던 옛날과는 다르니깐요

오늘 공화국의 수 많은 녀성들은 우리 나라를 점차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자기들에게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저 고층 건물들은 내 이 설계에서 부러 솟아 났답니다

—국제 무대에서 잘 싸우고 오렴
—네 어데까지나 평화를 위해 투쟁하겠어요

러영춘 그림

빈궁과 무권리의 노예적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는 공화국 남반부 녀성들은 미제의 발광적인 군사 기지화 정책을 저주하고 있다。

—군사 계획이다 빨리 비껴라
—네놈들의 계획이 반드시 파탄될 날이 있을 것이다

홍종호 그림

땅의 주인되여 10년

—철수야! 농사 진 것을 지주한테 몽땅 뺏기고 말았으니 어찌 산단 말이냐

—철수야! 아버지가 조합에서 저렇게 많은 분배를 타가지고 돌아。오시니 얼마나 좋으냐

공화국 북반부 농민들은 해방후 실시한 토지 개혁의 혜택으로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농업 협동 경리에 의하여 보다 부유한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섰다。

유 항 림

판개 공사장에 휴식 시간이 왔다。 한편 비탈에 십 여 명 농민이 모여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고 있는 가운데 저편에서 오 서방이 오면서 거기 앉아 있던 안 서방더러 물었다。

『사둔네 리에선 오늘 몇프로나 했나?』

『우리야 사둔네 동네보다는 한 20%는 더 했지』

『우리가 얼마 했는지두 모르면서 그래?』

두 로인의 말투로 보아서는 사둔 사이 같지 않지만 삼년 전부터 사둔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흠없고 입씸 좋은 말투는 오십년 전부터 계속되여 오는 것이다。 지금은 이십 여 리 상거한 곳에 살지만 어려서는 한 마을에서 살아 왔기 때문이다。

『사둔네 리에서 얼마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가 20%는 더 했을게야…』

『값은 몰라도 눅다는 격이로군!』

『작년 봄 사둔네 동네서 동막이할 때 우리가 20% 는 늘 앞서서 나갔으니까…』

『그때야 손님 대접으로 우리가 양보한 셈이지만 이번에야 될 말인가!』

『될 말? 「비 되는 말」말인가? 그 참 비 되던 그 말박은 지금 무에나 쓰나?』

『비 되는 말박』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오 서방네 동네는 지대가 낮고 강이 가까와서 수해를 겪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비가 모질게 퍼붓기 시작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박을 의례 뜰안에 내다 놓는데 빗물이 그 말 박에 남실거리게쯤 되면 피난 준비를 하는 것이 규례로 되여 있었다。 어림 어림하다 가는 물에 휩싸일 념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이 정부와 도내 전체 농민들의 방조를 받아 작년에 제방을 쌓았으니 그 말박도 인제는 소용 없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이였다。

『그 말박은 지금쯤 아마 장손이란 놈이 끌고 다니며 놀거네』

『장손이가 벌써 그걸 끌고 다녀? 고놈 참 제 애비 닮아서 바재단 말야 한애비를 닮았으면 둔했을 텐데』

『고게 참 제 애비를 닮아서 여간만 곰살곱게 굴지 않거든! 외 한애비를 닮았더면 우악스러울텐데…』

『말박 타령이 있으니 말이지 나두 한 시름 놨어。 범도 새끼 둔 골을 헤다고 우리집 로친네는 비만 한소내기 내리면 안팎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이거 원 야단 났군 아직두 오는군 상게도 멎지 않는군 하고 안절부절하더니만 자기두 비 오는 짐작이나 알겠다며 사둔네 것만 하게 말박을 하나 짜 달라지 않겠나! 그러던게 인젠 말박을 안짜게 돼서…』

『그러니 말이지 나도 한 시름 놓게 됐네。 이 판개 공사만 끝나면 우리 새애기두 모를 꽂다 말고 하늘만 쳐다보군 하지는 않겠으니 말이네 흰 구름 한 점만 떠 돌아도 저 구름에서나 비를 내려 본갓집 천수답에도 모가 들어가게 해주려나 해서 자꾸만 하늘만 쳐다보니…』

『며누리 하늘 쳐다 보는 것까지 감독을 하고 있으니 사둔네 가품도 짐작되네』

『그게 어째 걱정이 안되겠나? 그렇게 자주 하늘을 힐끔힐끔 쳐다 보다가는 누구처럼 눈이 비뚜러질까 해서…』

『알았네 알았어 그만 하게』

안 서방은 사둔의 말을 막으려 했으나 주위에서 와아 하고 웃음이 터졌고 한편에서는『어디 나중까지 들어봅시다』하고 구미를 돋우는 사람도 있다。 안 서방은 사팔뜨기라고까지 할 것은 없으나 자세히 보면 한편 눈은 촛점이 조금 비뚤어져서 고개를 들며 우를 쳐다볼 때는 더우기나 그것이 표났다。 안 서방은 잠시 따라 웃더니 주위를 둘러본다。

『그럼 차라리 내 자신 말합세。 언젠가 꽤 오랜 일이네。 한번은 논 고에 물을 대고 있노라니 저 너석이 오지않겠나』

『저 녀석이 뭔가? 사둔이 됐으면 체신을 좀 차리라구…』

『안야 일없어。 그땐 아직 사둔이 아니였으니까… 그런데 저 사둔이 오더니만 논 판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자꾸만 하 거 이상한데 이상해 하고 고개를 개웃거리지 않겠나 그래서 뭐이 그렇게 이상하냐고 물었더니 저 사둔이 하는 말이 임자는 똑바로 생긴 입으로는 말을 늘 비뚜러지게만 하면서도 비뚤어진 눈으로는 모를 줄 맞춰 똑바로 꽂았으니 말이네 하거든…』

다시 와아 하고 웃음이 터졌지만 안 서방만은 시치미를 떼고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나도 지기 싫은 김에 한마디 대꾸했지。 내 눈두 처음부터 비뚜러진게 아니라 한평생 천수답을 붙여 오노라니 자고 깨면 쳐다보는게 하늘이라 하루 힐끔힐끔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만 한 눈이 비뚤어졌다고…』

다시 웃음이 터졌다。 이윽고 오 서방이 물었다。

『그런데 여보게 사둔 지금이 어떤 시절인 줄이나 알고 있나?』

『누굴 등신으로 아는가봐 며칠만 더 있으면 보리 밭 갈 때지…』

『밭 갈고 씨뿌리는 것만 봄인 줄 아니까 사둔은 아직두 락후한 등신이지。 지금은 봄은 봄이지만 북반부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터전을 닦는 봄이란 말이네。 사회주의란 자기 능력껏 일할 수 있고 일하면 일한만큼 받는 것이거든 그러니 장마에 말 박을 내다 놓거나 가물에 눈이 비뚤어지는 일은 이땅에서 아여 없애야 한단 말이네』

『뭐 별다른 말이나 하려는가 했더니… 그런 것쯤 나두 알아…』 이때 작업을 다시 시작하자는 종이 울려 모두 일어섰다。

이윽고 벌판 한가운데로 새로 뻗기 시작한 통수로 우로 사회주의 건설자들이 흥겹게 밀고 나아가는 밀차들이 꼬리를 물고 내달리기 시작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 개싸움

장진광 그림

전후에 있어서 첫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격화된 리 승만 괴뢰 집단 내부의 개싸움은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이 비져낸 필연적인 결과이며 또한 놈들의 매국 정책이 인민들로부터 더욱 고립되고 있음을 표정하는 것이다。

쑥밭

한 계 홈

추위에 떨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호남벌에도 봄은 왔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을 이마에 앞둔 무연한 벌에서는 흙냄새가 풍기고 훈훈한 봄바람이 설렁대였다。

김 창흡은 고향을 떠나 이삿길에 나섰다。 식구들의 앞장에 서서 동구앞을 지나 잿등을 넘어 행길에 나서려면 그는 제손으로 가꾸던 밭머리를 지나야 했다。 발은 천근 같이 무겁고 가슴은 메여질듯 쓰렸다。 밭머리에 펄썩 주저앉아 그는 흙을 두손에 움켜쥐고 삼킬듯이 흙냄새를 맡고 있었다。

바로 이때 잿등을 넘어 『추곡 매상』 독려차로 나오는 순경 김 왈불과 딱 마주쳤다。 김 창흡을 보자 순경은 찹쌀 막걸리 냄새를 풍기며 올빼미 눈같은 눈알을 부라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놈 어데로 도망쳐?!

—뭔 죄가 있어 도망치나요 입에 풀칠할데를 찾어 가는데요 뭐!

—뭐? 거짓말 말아 추곡 매상을 피해 도망치는거지?! 경찰은 다 알어 벌써 도망친 놈들이 부지기수야 그렇지! 흥 바른대로 말해

—이거보시유 나는 곡식 한알 냉기지 않고 추곡매상에 몽땅 털어 바쳤는데요 뭐…

—에잉! 멀정한 소리 말어! 그 짐속에 쌀이 있지

—쌀이 다 뭐이요 쌀커냥은 쌀게 한수까락도 없는데요 뭐…

—흥! 내 눈을 속일라구 안돼 안돼 내가 누군줄 알어 냉큼 짐을 벗어 놓고 재껴 놓아라

풀어 놓은 이삿짐을 순경은 곤봉으로 삿대질도 하고 발길로 차기도 하고 숫닭처럼 파헤치기까지 하였으나 있으리라는 쌀은 없고 그릇과 누데기 뿐이였다。 잿김에 부화가 치밀은 순경이 짐을 발길로 차던지자 빈바가지가 뎅그렁거리며 밭이랑에 나가 뎅굴어 떨어졌다。

어린애들이 일시에 울음을 터뜨리고 아낙네는 땅을 치며 양가풀이를 하였다。

—나릿님 아이고 이제 뭔끌이요 거나마 살림살이를 이렇게 몽땅 때려 부시다니! 백성들과 뭔 웬수요!

—흥! 계집년이 못하는 소리가 없다。 그래 봄철에 농사는 않고 도망치는년이 웬쑤가 아니란 말이냐 뭐… 뒤 더러워

김 창흡은 더듬더듬하나 궁굵은 목소리로 통명스럽게 내여 쏘았다。

—아니 순경나릿님 땅이 있어야 말이지요。 뭐 갖다 실라는 넙적지에다 밭을 이루란 말이유

—뭘? 농지 개혁 때의 분배 농지는 삶아 처 먹었냔 말이야?

—힝 삶아 먹었는지 국고며 먹었는지 어쩌면 농사꾼들이 이렇게 말하나요 뭐 『농지 개혁 하나마나 팔리는 분배 농지 5년도 못되여 새 지주의 손에』

—이놈 전 게름뱅이들의 말이다。 일을 부지런히 안하니 땅이 있을게 뭐야

—나릿님 나도 되도록 내 고향에서 살어 볼까 하고 잔뼈가 휘도록 일했는데 뭐— 갖다실라는 할게 있어야지유 뭐— 지세요 상환미요 뭔가 오만가지 잡세를 물면 가을엔 게죽도 남지 않는데유 뭐 요번만 해도 추곡 매상에 몽땅 쓸어 물었드니 또 죽은 이웃집 김령감 몫이까지 내라구 하는데요 뭐 그것도 이웃 사촌이라 꼭 내야한다니 어떻게 하나유 뭐…

—이놈 내가 네 신세타령을 듣자는건 아니다。 넌 세상을 모른다。 미국에서 비료까지 실어다 농사를 지으라는데 그것도 싫단 말이냐!

—여보 거말은 거만둬유 요전 우리 동내에 신문 기자 한사람이 와서 말하든데요 뭐 『비료 값을 네배반 올리는건 군사비가 모질라 하는 것이래유 나릿님은 참 세상일을 모르는가바유 추곡 매상 때는 딸라와 환풀이가 500대 1이 되면 높다고 180으로 하자고 대통령이 담화까지 내지 않었나요 뭐?! 그런데 지금 비료 값은 500배도 아니고 635배가 되니 우리 보게도 그거야 뻔한 일이 아니야유 아이고… 참 쌀 값은 한정없이 오르지 어떻게 산단 말이유

—이놈 알지도 못하는 소리 지꺼리지 말어 쌀 값…전 네가 무식해서 하는 말이다。 해운 공사 동해호가 지금 화란에 가 있는데 그게 오면 미국에서 밀가루를 실어온다。 이전 며칠 전에 신문 기자들을 모아놓고 리 승만 대통령의 분부를 농림 차관이 전달한 말이다。 이런 근거 있는 말을 들어야 한다!

—허… 허… 그럼은 배 한척이 쌀 값을 올린단 말이유 그럴라치면 —왜 일본에 쌀을 실어가고 썩은 밀가루를 실어 온단 말이유? 아니 썩은 밀가루라도 돈이 있어야지 팔아 먹지 않아유?

—이놈아 못하는 소리 없구나 왜 풀뿌리라도 먹고 농살 안짓코 도망치나 말이야 흥 그래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을줄 아냐? 거기는 실업자가 거리에 우굴거리고 있단다。당장 집으로 돌아서라!

—풀뿌리 —나무껍질! 말은 좋아유 나무껍질도 지주가 있는데요 뭐 녀며 딱해서 며칠전 밤중에 나무껍질을 베끼다가 죽을경을 쳤는데요 뭐 우리집안 식구는 입에 거미줄을 치게 됐시유 오죽하면 고향을 떠나겠시유 여보 나릿님 대처도 못가지요?! 시굴에서는 살 수 없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산단 말이유 이 세상이 뒤집혀도 뒤집히고 뭔 수가 있어야 살지 않나!

이 말에 성이 독같이 난 순경 김 왈불은 말을 중동무이하고 펄펄 뛰면서 팩팩 소리를 질렀다。

—이놈아 알고보니 네놈이 반도로구나 흥 잘 만났다。 가자 몽둥이 맛을 봐야 알겠나?!

순경이 포승을 꺼내들고 덤벼들자 어린애들은 —아버지! 아버지! 하며 울고 아낙네는 통곡하면서 순경에게 달려들었다。

—아니 이 세상이 뒤집히야 한다는게 뭔 잘못이유 왜 내 랑군을 묶을라는게유

순경은 달려드는 녀인과 어린애들을 닥치는 대로 발길로 걷어찼다。 잿등은 울음소리로 꽉 찼다。 김 창흡은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웨치다 싶이 말했다。

—굶어 죽으나 맞어 죽으나 뭐이 다를 것이 있냐 이 자식들아 불타고 썩고 병들고 가난한 이 땅이 쑥밭이 아니고 뭔가 말이야 아니 녀이 놈들이 뒤여질날이 없을줄 아냐

—이놈아 주둥이를 닥처 네 육신이 성해 있을 줄 아냐

순경은 미친개처럼 김 창흡에게 달려들어 발길로 차고 곤봉으로 막우 때렸다。 얼굴에서는 선지피가 흘렀다。 바우같이 밭머리에 두발을 버티고 서 있던 김 창흡은 순경을 밭이랑에 내여 동댕이쳤다。 빈바가지처럼 밭이랑에 나가 뎅굴고 있는 순경을 노려보며 김창흡은 원한에 사모친 심정으로 또렷하게 말했다。

—이자식 히불테면 히바라。 사람이 한번밖에 더 죽겠냐 녀이 놈들이 악을 써도 안된다。 이 땅도 쑥밭이 아니고 옥토가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봄 바람은 잿등에 먼지를 일쿠며 불어왔다。

리 승만의 군비 확장

—길러도 가꾸어도 독버섯은 시들어만 가니
상전님 이 농사에 딸라를 더 주십시요…

송용남 그림

리 승만 역도들은 미국 상전의 명령 밑에 대포밥 정모에 광분하여 『병역복무 년한』을 무제한으로 늘쿠며 청년들을 강제 동원하고 있다。 또한 놈들은 군사 기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학교 등 공공 건물은 물론 농민들의 막대한 농토들을 통채로 강탈하고 있다.

기구에 매여 달린자

서 창 훈

범죄 즐겨 어두움에 몸 맡기나니
기구 너도 어두움 타고 떠났는가
유·에스·에이 너를 낳았음으로 하여
너 캥 행색으로 밤하늘 올랐는가

너 무엇을 매달고 올랐기로 판게하랴
로스안젤스제 자동 사진기에
필라델피어제 송수신기
항차 네게 매달린 자갈 두상자 뿐이랴
그 누가 너 실은 짐의 무거움을 말하랴

허나…
너 날려 기여든 하늘
여기 인민의 나라 상공엔
밝은 햇빛 휘황한데
너 표류함으로 하여
체코의 며객기 추락됐고
너 걸렸음으로 하여
루마니야의 전신선 끊어졌고
너 덩굴므로 하여
웽그리야의 이쁜 아기 다쳤으며
너 터짐으로 하여
불가리야 농가 불탔어라

어찌 그에 그쳤으랴
인민들은 보았다
우크라이나의 상공에서
네 사진기 무엇을 훔쳤음을
인민들은 들었다
백로씨야의 하늘에서
네 송수신기 어떤 기밀 말했음을

『공중 촬영안』 푸념에 밤 밝히고
『전쟁 접경 정책』에 몸 달아
너를 『접경』넘에로 띄워보낸 백악관 나으리
너를 불러 『기상 관측용』 기구란다

묻노니
간악한 무기 장사치여!
너 어찌 숍도계 잊었는가
한난계 매달지 못했는가
아니면
그것없이 『기상 관측』 묘책 낳았는가

인민은 속지 않는다!
증오의 불길 한날 기구만 불사르랴
분노의 파도 너를 삼켜 버리리니
월가 사기군들이여!
가소로운 네 기구에 매여달며
오고야 말 멸망을 더욱 재촉하리라!

양캐가 발 붙인 곳에서…

백안균 그림

굶주린 늑대 앞에 놓인 남조선 경제
—미 독점 자본가들의 투자를 환영하여
리 승만이가 제공한 외국 자본 도입법

이런 일이 일상사
—11개월 동안에 교통 사고 4.588건
회생자 8.000 여 명…

농촌에 나타난 괴물
—기아와 죽음을 강요하는 『추곡 매상』
독려반에 소위 장관급까지 동원

인민의 피땀을 빨아서…
—큰 놈은 크게 뜯어 먹고 적은 놈은 적게
뜯어 먹는 괴뢰 집단

출치기에 혈안이 된 껌정개
—3월에 들어서… 징집 기피자 색출에 또
다시 눈이 뒤집혔다

여봐라 저게… 바람 소리냐? 귀신 소리냐?
류례 없는 인간 백정의 류례 없는 불안…

남조선 녀성들의 처지

개인 사정이라고

리 승만 도당들은 녀성들을 천대하며 지어는 가른 롱간을 다 부리는 것이 통례로 되여 있거니와 소위 놈들의 『기관』이나 『회사』 등에서 한자리 해 먹는 자들은 빠짐없이 그러하다。

서울시 룡산구에 있는 경성 고무 공장의 인사 과장도 극심한 취직난을 기화로 녀성 로동자들에 대한 행패가 남만 못지 안했다。『말을 듣지 않거나』 『주는 것이 없거나』란 이 말은 인사 과장이 로동자들을 해고시킬 때마다 로동자들 속에서 빗돌아가는 말이다。 그런데 하루는 제화공 김 순실 녀성이 인사 과장을 찾아갔다。

『저… 사정 말씀이 있는뎁쇼 이달이 해산할 달이옵기에 휴가를 주셨으면 하고…』

『뭐라고? 홍 남편이 있었구만 어쩐지 건방지게 굴더라…』

『아니 제가 무엇을 건방지게 굴었나요?』

『아니면 왜 내 말을 안들었냔 말야 이제 와서 무슨 휴가를 달라구 사정을 해? 누가 로동자들을 위해서 공장을 차린 줄 알아… 어린애가 있으면 나가 버려야지…』

『그러니 하루에 열두시간—열네시간씩 로동을 해도 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합니까』

『굶어 죽어도 그야 개인 사정이지 우리야 애 있는 사람을 썼다가 손해를 볼 수는 없는거구…』

모성 로동자들을 위한 탁아소나 산전 산후 휴가는 고사하고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선 내쫓기 일수인 놈들은 결국 김 순실 녀성을 해고시켰다。

괘씸하다고

충청남도 공주군 주외면 소학리에 사는 리 금실 녀성은 혼자서 재봉일을 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늘상 중매쟁이를 내세워 자기 첩 노릇할 것을 강요하던 면장이 하루는 갑자기 나타났다。

『어떻게 혼자서 살만 하우…』

『혼자서래도 뜯어가는 거나 없었으면 살겠으유…』

『그러니까 어려울거란 말이지… 고집피지 말고 내 말을 듣소!』

『아이구 혼자 산다고 깔보고 막우 말하는거유… 난 첩질은 고사하고 식모노릇도 못하겠으유…』

『홍 그럼 재미 없어 내 말 한마디면 다야 이 동내에선 못살게 할테니까…』

『참 망칙스러워서 남편은 군대로 끌어내다 죽이더니 인제 나까지 못살게…』

『말 잘한다 "뜯어 가는거나 없으면" 그리고 "남편은 군대로 끌어내다 죽이더니" 따위 말을 함부로 해… 빨갱이로구나 괫심한 년!』

이런 일이 있은 며칠 후 경찰 지서장과 결탁한 면장의 작간으로 리 금실 녀성은 경찰 지서에 끌려가서 무서운 고문을 당한 것은 물론 집까지 『귀속 재산』이란 왕청 같은 명목이 붙어 지서장의 처갓집 소유로 강탈당하고야 말았다。

수입이 좋은 데라고

서울 성동구 향당동에 사는 황 옥선 녀성의 남편은 전쟁 시기에 『국군』으로 끌려 갔다가 부상을 당하여 『상의 군인』으로서 제대되였다。그러나 남편은 아무리 애를 써도 취직이 안되고 또 밑천도 없어서 장사도 못하게 되니 생활 형편은 비참하였다。 그래서 황 옥선 녀성은 하다못해 식모살이라도 구해볼까 하여 『서울 시영직업 소개소』를 찾아갔다。

『식모자리라도 없는가구요?』

『네… 어떻게나 벌이를 해야만 살겠기에 찾아 왔습니다』

『그래요?! 식모자리는 당장 없고… 하기야 좋은 곳이 딱 한곳 있기는 한데 좀 "소개비"가 많아서…』

『아이 참 좋은 곳만 소개해 주신다면 의복이라도 팔아서 "소개비"는 내겠어요』

『그러시다면… 아주 수입이 좋은 데를 소개할 수 있지요。아주머니는 얼굴도 고우시고 해서 될 것 같은데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특별 식당 "접대부"로 가시지요』

『뭐라고요? 결국 날보고 양갈보가 되란 말이요 참 더러운 수작을 다 하지…』 황 옥선 녀성은 분개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직업 소개 청원서"를 찢어 버리고 나왔다。

『사교적』면이 부족해서

힘들게 숙명 녀자 대학을 졸업한 박 인덕 녀성은 취직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빽』이 없어서 아무데도 붙지를 못했다。그런데 하루는 신문 지상에 난 동방상사에서의 녀 사무원 모집 광고를 보고 달려갔다。

『21세라! 년령도 적당하고 체격이나 용모도 괜찮은데… 어째 양장을 안했습니까?』 사장은 아래 우로 훑어보며 말했다。

『네… 좀 형편이 곤난해서… 그러나 어떻게던지 양장을 하겠어요』

『좌우간… 조금 기다리시요 아니 마침 잘되였군… 나랑 같이 지하실로 내려 갑시다。 "빠"도 구경할 겸…』 할 수 없어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지하실 "빠" 장소까지 따라 내려간 박 인덕 녀성에게 사장은 태연히 말했다。

『미국 손님들이 만족스러워 하도록 한번 사교술을 써보시지…』

『아이 전 저렇게 술이나 담배 먹는 것은 고사하고 땐스도 못추는데요…』

『하— 우리 회사는 미국 손님들을 상대하는 무역 회사가 되여서 양장의 「로출미」나 사교적 면이 부족하면 곤난한데…』

『그래요 저도 미국식 생활이나 사고 방식은 싫어요』 박 인덕 녀성은 그대로 나왔다。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서울 장춘 국민 학교 녀교원 김 정자 녀성은 교장이 불러서 갔다。

『김 선생이 애들에게 한말이 말썽꺼리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말이요? 교장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경찰 사찰계에서 알기만 하면 큰 문제인데… 김 선생이 5학년생 애들 보고 "전쟁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무서운 불행을 가져 온다。 때문에 전쟁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전쟁은 어린이들에게서 부모와 집과 배움터까지를 빼앗아가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스럽게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저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위해서라고? 그건 우리의 교육 방침과 정반대인 위험한 말이우。나는 더 책임을 질 수 없는걸…』

『교장 선생님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동 교육가로서 특히 녀성의 립장에서 어린이들의 불행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김 정자 녀성은 『불온』하다는 리유로 교원 직에서 해고되고야 말았다。

김 동 희

리 승만의 『농림부』

-이놈들아 총이 없냐 칼이 없냐 왜 쌀을 못뺏아 들이느냐?

박승히 그림

리 승만 도당들은 농민들로부터 소위 『추곡 매상』의 명목으로 155만석의 량곡을 생산비보다 석당 2천 6백환이나 낮은 헐값으로 강탈함으로써 최소 한도 40억환 이상의 거액을 갈가 먹을 획책을 하고 있다。그러나 농민들의 반대에 의하여 『추곡 매상』 계획이 부진 상태에 빠지자 경찰은 물론 테로단까지를 동원시켜 악랄한 략탈 수단을 쓰고 있다。

기아와 억압 속에서

△ 가을 사둔

오랫만에 사둔이 왔다。 반가이 맞아들여 서로 인사가 끝나자 주인 윤 첨지는 바쁜 일이라도 있는지 안으로 밖으로 들고 나더니

『사둔님 앉아서 잠시 기다리십쇼。 잠간 다녀올테니…』하며 나가 버린다。 조금 후에 본가 형편이 알고 싶어진 딸이 방으로 들어왔다。

딸과 단 둘이 마주 앉아 최 서방은 한숨부터 내 쉬였다。

미군 비행장인가 하는 것을 닦는다고 농토와 집을 몽땅 내놓고 쫓겨나게 된 최 서방은 궁리궁리하던 끝에 사둔집을 찾아 왔다。 혹여 여기서 땅마지기라도 얻어 붙일 수 있다면 천만 다행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족을 여기에 한 두달 맡기고 자기 혼자 일자리를 구해 떠나 보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딸네 집 형편도 나을 바가 없었다。 일년 내내 뼈가 휘도록 씨뿌리고 가꾸어 왔건만 가을이 되자 고슴도치 외 걸머지듯 한 빚이며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오가잡탕 가렴 잡세에 쪼들리다 못해 벼를 논에 세워둔 채 립도 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곡식이 잘 됐든 못됐든 논바닥에 들어서서벼포기를 베는 때면 일년 고생을 다 잊어버리는 법인데 벼가누렇게 익은 뒤에는 제 논이라고 한번 들어서 볼 수조차없어졌으니…』

말하기도 기가 차서 잠시 말을 끊었던 딸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시아부님이 무엇하러 가셨는지 아셔요?』

『…』

최 서방은 대답지는 않았으나 알아차렸다。윤 첨지는 오랫만에 찾아 온 사둔 령감을 위하여 쌀을 조금 구해 볼까 하여 일곱번째의 집을 찾아가고 있었다。

『허어 이거 원 옛날의 궁한 농군들이 봄 사둔은 꿈에 봐도 무섭다고 했다더니 어떻게 돼먹은 세상인지 가을 한참 좋은 철에 사둔 령감이 왔건만 이게 무슨 일이람…』

△ 『인심 좋은』 지주

소위 『농지 개혁』 때 최 로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아들과 주고 받은 일이 있다。

『아부님께서는 좋아하시지만 내겐 놈들의 뱃속이 뻔해 보입니다。 지주놈들끼리 모여서 만들어 낸 법인데 웬걸 소작인들의 리익을 생각해서 하는 일이겠소。 생각했다면 고양이 쥐 생각이겠지』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얘야 난 우리가 붙이던 그 논이 우리 결로만 된다면 소금을 지고 물로 들어가라고 해도 들어가겠다』

『농지 개혁』 이듬 해에 아들은 『로무 사단』에 끌려 나갔고 최 로인에게는 해마다 빚만 늘어갔다。소출은 『토지 상환곡』이니 『토지 수득세』니 뭐니 하고 다 빼앗아가고 가렴 잡세는 매일 같이 와 닿고 빚을 지지 않을 재주가 없었다。

그러던 끝에 전의 논 임자였으며 지금은 그에게 빚을 지운 지주 박 주사는 요즘 와서 한결 더 빚 독촉을 급히 한다。『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하게。새끼 리자 손자 리자 자꾸만 리자가 늘어가는 데 별 수 있나? 공연한 고집을 부려야 해롭네。 지금 땅을 내 놓는다면…』하며 박 주사는 산판알을 퉁기더니

『이건 내가 뭐 땅이 탐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령감네 사정을 봐서 하는 말이네。 지금이라면 땅을 내놓고 리자로 집만 더 첨가해 주면 그 밖에 더 받자고도 하지 않겠네。이거 보게 땅과 집만으로는 아직 리자가 채 되지 못하지만 가장 집물까지 다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겠네。 내야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이라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하두 인심이 좋아서 하는 말이네』

최 로인은 아들의 말이 옳았다고다시금 생각지 않을 수 없었다。 지주들의 인심—이는 곧 고양이 쥐 생각이다。

△ 불행의 근원

계해년 랑수에도 무사했던 버드냇골 앞의 동은 지난 여름의 대단치 않은 장마에 그만 터져서 이틀 동안이나 논들이 물 속에 잠기게 되였었다。

이 동은 본시는 꽤 든든히 쌓았던 것이였는데 오랜 세월 보수를 안해서 이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착취로 말미아마 농민들이 극도로 빈궁해진 오늘 농민들 자신의 힘으로는 제방을 수축할 능력이 없었고 괴뢰 『당국』으로서는 물론 그런데 관심조차 돌리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봄에 있은 미군의 기동련습 때 숱한 땅크들이 동둑을 넘나들더니 거기서 동티가 났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버드냇골에 흉년이 들었건만 가을이 되자 량곡 략탈을 위한 『독려대』가 나타났고 농민들의 불평불만은 나날이 커갔다。 이 불평불만을 들은 면장 리장로는 버드냇골 사는 면 일가와 이야기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훈시를 한 일이 있다。

『동 터진 것도 당국의 잘못이라니 그게될 말인가? 비는 하느님이 내리는건데 당국의 힘으론들 어떻게 막겠나? 계해년에도 안터졌던 동이라구? 계해년은 계해년이고 금년은 금년이지 그걸 비교해 뭘하겠나? 도대체 버드냇골 사람들은 사상이 불온해서 작년 『추곡매상』 때도 성적이 하 나쁘더니 그만 하느님이 노여워 하시여 너희들에게 불행을 주도록 터지게 한거야』

이 말을 전해 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 덕분이든 누구 덕분이든 그건 고하간에 하여튼 미국놈과 리 승만 도당은 조선사람들에게 불행의 근원이라는건 틀림 없지』

유 항 림

쪽집개 소식

당연한 일

남조선의 각 대학들에선 요지음 졸업기를 앞둔 대학생들의 도피자가 격증함에 따라 또한 『색출』 선풍이 일었다고 한다。"졸업과 동시에 징집에 응하여 입대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고 한 『당국』의 방침에 의하여 졸업 후엔 취직해야 할 당연한 길을 뺏기게 된 청년들이 미제의 대포밥되기를 반대함은 당연한 일… 그런데 한편 징집 기피자를 색출한다는 구실로 밤중에 함부로 가택에 침입하여 녀인들이 덮고 자는 이불까지 들쳐보며 엉뚱한 『색출』 수작을 부리는 경찰들의 야만적 행위에 인민들이 분개함도 더욱 당연한 일…

마음은 콩밭에

남조선에는 국내 기자들과의 회견 석상에서도 태연히 영어로만 말하는 『미국산 장관』이 많다고 한다。 한편 일본 기자들을 만나서 "고노고로 『나이찌』와 도메스까네…" 하고 서슴없이 일본말로 『나이찌』를 문안하는 『일본산 고관』도 많아서 아연케 한다고… 그래서 남조선 기자들까지가 "이 망칙스러운 『어른』들이야말로 마음은 콩밭에 있다"라고 매국노들의 본질을 비웃고 있다。

불안에 싸인 사람들

서울에는 일시 계엄 상태나 다름 없는 비상 단속이 있었는데 특히 키큰 사람들이 많이 걸려선 가즌 행패를 다 겪었다고… 그 원인은 1월 30일에 있은괴뢰 륙군 『특무 부대장』 김 창룡 『소장』의 살해범이 키큰 사람이란 데 있다고 한다。 그래서 키큰 사람들은 대개 불안에 싸여 어떻게나 키를 적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는바 이또한 덮어놓고 잡아라, 때려라, 죽이라는 미국식 『민주주의』가 비져낸 불안이 아니고 무엇이랴…

먹은놈 경쳤다

리 승만 도당들에게는 팔아먹고 얻어먹고 뺏아먹고 등쳐먹고 좌우간 인민들을 뜯어먹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다。 그런데 놈들의 광업 부문 독점체인 『대한 광업 진흥 회사』가 경영하는 충남도 청양 광산 사무실이 2월 10일 저녁에 폭파되였다。 사건은 임금 지불을 연체시켜 착취하는 놈들에 대한 로동자들의 격분이 폭발되여 발생한 것이라고… 그러니 기아임금이나마 제때 주지를 않고서 갈가먹고 가로채먹고 하다가 결국 또 한번 경친 것이니 이런 일이 어찌 이번만으로써 그치랴…

『자유업』

남조선에는 벼라별 『자유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년 소녀가 많다。 미군과의 『거래』로 껌, 쵸코렡트, 양담배, 화장품 등 유·에스 품을 들고 다니며 파는 소년 소녀는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밖에도 밤거리에서 신문을 파는 녀학생, 구두닦기를 하는 남학생도 많다。 그런데 최근 또 한가지 기괴한 『자유업』을 하는 소년들이 많다고 하는바 그것은 다름아닌 미제의 침략정책에 의하여 전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마른 『사창』들의 격증에 따라 『유객업』이란 『자유업』에 나선 소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유 세계 한국』의 소년 소녀들에게는 배움의 길 아닌 『자유업』의 길밖에 없는 형편이니 딱한 일…

신판 『복덕방』

리 승만 도당은 『입찰』이다 『불하』다 하여 광산과 공장 뿐 아니라 학교까지도 팔아 먹다 보니 이제는 뿌로카 미끼도 거덜이 나자 소위 『재건 주택』 매매라는 신판 『복덕방』 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보건 사회부』에선 최근 "모처럼 집은 지여 놓았으나 입주할 구매자가 없어서 방치되고 있다"라고 『재건 주택』 판매난에 대하여 비명을 울렸다。 놈들은 인민들이 할 수 없이 살고 있는 토막집마저 "미국 손님들 보는데 수치"라 해서 강제 철거를 시킴으로써 인민들을 극심한 주택난에 빠지게 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겨우 엉성하게 지여논 『재건주택』 1호당 60만환이란 엄청난 가격을 붙여 팔아 먹으려다 보니 신판 『복덕방』도 파리만 날릴 수 밖에…

『봄 맞이』

봄에는 새 싹이 움트고 꽃이 핀다。

그런데 요지음 남조선에서는 특별 방지 대책으로 극 독약 단속 강화 주간을 설정하고 봄맞이를 한다。 즉 산또닌, 염산, 에메친, 모르히네 등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사용 목적, 주소, 성명, 수량 등을 조사한다고…

그것은 타락과 죽음—젊은 남녀들의 자살, 극심한 생활난에서 목숨을 끊는 자살자들이 예년에 비해 더 많으리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요는 극 독약 단속 강화로 봄맞이를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미국식 생활 양식의 범람을 조장하는 근원을 없애 버려야 할 일…

『착 각』

『내가 지금 미국에 있나? 조선에 있나?』 운전수는 자기의 눈을 의심해 바깥을 보고는 차내에 앉은 사람들을 번가라 본다。 요지음 서울 시내 택시 운전수들은 일년내내 황색 흑발이 아닌 금발 적술(입술) 남녀들만 태우고 그나마 행동까지 미국놈을 먹구 계운 꼴들이 눈에 보이는 터이므로 가끔 자기가 —미국에서 미국의 남녀들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는 줄로 착각한다고… 그래 바깥 서울 풍경을 보고서야 —분명히 조선인데 모든 꼴들이 내 눈을 어질기웠군— 한다고…

—최근의 남조선 소식에서—

김 동 희

조선을 친선 방문한 "손오공"

박승히 그림

—손오공이여! 우리는 비상한 재능과 용감성과 불굴의 정신을 가진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웬 천만에 말씀을… 내가 조선에 온 것은 다름아닌 바로 그 말씀을 당신들께 드리기 위한 것이였습니다

조선 인민과 조선 인민 군대를 위문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 인민 위문단 공동단은 중국 인민의 자랑스러운 민족 교전인 "삼차구" "추강" "천궁 소동"(손오공 이야기) 등 경극을 상연하여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숙망은 풀어졌다

박승히 그림

—보게!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여 숙망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웅대한 건설까지 하고 있네 그려…

—글세! 우리야 갑오 농민 전쟁때 저런 일은 생각도 못했고 또 힘도 없었지 정말 옳은 령도와 단결된 힘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거던…

조선 농민들은 일찌기 1894년에 봉건 지주들의 착취와 외래 침략자들의 략탈을 반대하여 갑오 농민 전쟁을 일으켰으며 그 후도 끊임 없이 땅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농민들의 이 오랜 숙망은 8·15 해방에 의하여 비로소 공화국 북반부에서 성취되였으며 오늘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들을 거듭하면서 부유와 행복의 길을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강산은 변했다

—봄이 오면 또 오겠어요

—겨우 이 마을을 찾아 왔답니다

안창수 그림

확신성 있게

—저 페허에 높은 건물을 세우렵니다
—글세 너무 대담한 짓이 아닐까

—보십시요 앞당겨 완수했습니다
—아?! 군!

오늘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3개년 계획을 앞당겨 초과 완수할 굳은 결의로써 력사적인 조선 로동당 제3차 전당 대회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해 이렇게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사람아 거야 되다 뿐인가

리영춘 그림

「철의 장막」은 어디에?

전 인 철

『철의 장막』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의 고안자인 전 영국 수상 처칠씨는 과연 부르죠아 출판물들의 『존경』을 받을만 하였다。 밤이나 낮이나 미국과 서방의 부르죠아 신문 잡지들, 라디오 방송들은 이 말을 떠들지 않을 때는 거의 없었다。 오늘날에도 물론 그들은 여전히 또 어떤 면으로는 더욱 소란스럽게 이 말을 떠들고 있다。

그러나 처칠씨에게 대한 부르죠아 출판물들로부터의 『존경』도 여전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일로 되였다。 처칠씨는 이말을 창시할 때 마치 쏘련이 『철의 장막』을 쳐놓고 쏘련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나 다 감추고 비밀에 부쳐 두고 남에게 보이기를 두려워 하며 또 『쏘베트 제도의 약점』 때문에 자본주의 제국과의 접촉을 극히 두려워 하고 있다는 듯이 사태를 묘사하였다。 부르죠아 선전가들은 쏘련을 중상하며 공산주의를 비방함에 더 없이 적절하고 구미에 맞는 말을 발견하였다고 이에 매여 달렸다。

중국에서 인민 혁명이 승리하자 그들은 곧 『철의 장막』의 자매편으로서 『참대 장막』이란 말을 또한 만들어 냈다。

그러나 처칠씨 자신을 비롯해서 미국이나 기타 서방의 수많은 부르죠아 선전가들은 누구도 이 『철』이나 『참대』 『장막』이 실지로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데 대하여는 말해 본적이 없다。

작년에도 미국의 많은 상 하원 의원들이 쏘련을 방문하였는바 쏘련은 그들을 흔연히 맞아 들이고 그들과 담화하였다。 또 영터리 없는 반쏘 기사들을 날조하는 것을 전문 직업으로 살아 온 미국 반동 신문사들의 많은 기자들이 쏘련에서 자유로이 려행하였으나 그들은 쏘련에 있다고 하던 『철의 장막』을 만져 보지도 먹어 보지도 못하였다。 왜냐 하면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일이 이렇게만 되고 말았던덜 부르죠아 선전가들은 그 무엇을 조심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행은 처칠씨가 쏘련을 념두에 두고 고안해 낸 『철의 장막』이 오늘날 사실에 있어서는 쏘련이 아니라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이 확증된 데 있다。

『천정 보고 뱉는 침은 제 얼굴에 떨어진다』는 격으로 이 아름답지 못한 감투는 제창자들 자신이 뒤집어 쓰게 되였다。

작년에도 쏘련의 정치 단체 아닌 몇몇 단체 대표들이 쏘련을 방문하였던 미국의 해당 단체로부터 미국을 방문할 데 대한 초청을 받았었다。 그런데 미 국무장관 덜레스씨의 지도 하에 있는 국무성의 관리 어른들은 이를 즐겨 받아 들이지 않았다。

례를 들면 쏘련의 장기 선수들이 미국 선수들의 초청을 받았을 때였다。 덜레스씨의 국무성 어른들은 장기 선수건 무엇이건 간에 어쨌던 쏘련 사람들이 미국에 얼신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웃으울 정도를 지나친다。 장기에야 무슨 사상이 있겠는가? 아마도 부르죠아 선전가들은 『장기도 사고하는 것이니까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른다。

그러면 다음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전 모쓰크바를 방문하였던 미국 료리업자 대표들이 모쓰크바 료리 일군 대표들을 미국에 초청하였다。 미 국무성은 이것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

덜레스의 국무성 관리들은 확실히 쏘련의 료리 일군들까지도 무서워 하고 있다。

『먹는 것도 사상』이란 말인지?

허기야 미국 상전에게 복무하고 있는 리 승만 괴뢰 정부의 『공보 실장』 갈 홍기는 작년에 공화국 전기상으로부터 남반부에 전력을 공급하여 줄 데 대하여 제의하였을 때도 『북조선의 전기를 받으면 공산주의가 침투』하게 된다고 —즉 『전기도 사상』이라고 거절하였던 일도 있었던 것만큼 미국식 사고 방식의 『자유』의 본질도 가히 알만한 것이 아닌가?

미국의 출판물들은 또한 사상 개조에 관하여 말할 때 『두뇌 세탁』이란 말을 흔히 쓴다。

덜레스씨나 그의 지도 하에 있는 국무성 관리들이 그렇게도 무서워 하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젖지 않기 위하여 아침 저녁 그의 『두뇌』를 우유로 세탁하는지 알콜로 세탁하는지 또는 먹는 것도 『공산주의 위협』이라는 판이라 그들의 식탁에 오르는 료리들은 층기 소독만 해서 먹는지 혹은 먹지 않는지 딸라만 먹고 사는지 이것들은 모두 『철의 장막』 뒤에서 하고 있는 그들의 일이니만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치적 자유에서 경제적 자립에로

—거치적 거리지 말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할하고 통치하려는" 그대들의 『원조』가 아니라 저러한 평등과 호혜의 평화적 통상이란 말야!

홍종호 그림

인도를 비롯한 수억의 아세아 인민들이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적 예속으로부터 해방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진영에서 달성한 성과들을 평등과 호혜의 평화적 통상으로 향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자적인 경제적 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국제단신

불란서의 선거 결과
…이크 꽃밭 임자가 오는군

아프리카 인민들은 자주 독립의 길을 내달린다
…막지도 못하고 흙탕만 뒤집어 썼군

서부 독일 정부 련합의 붕괴
…하늘 같이 믿었던 곳에서 타격이로구나

쏘련의 방조에 의한 애급의 원자 발전소 건설
…에그머니 여기서 이런 것이 발에 걸릴 줄이야!

나쁜 일기

미국 깐자스씨티 도시의 어느 한 학교를 보기로 합시다。 이 학교의 교장 류셀 리 쉐르만을 방문하여 사업 정형에 대하여 물어 봅시다。 아마 그는 대답 대신에 자기의 일기장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벌써 며칠 동안이나 일기를 쓸 수가 없다。 손이 떨린다。 흥분되여 어쩐지 마음이 이상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가? 차례 차례 도리켜 보자。 나는 학교에 있었다。 갑자기 나의 사무실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어떤 격분한 신사가 뛰여 들어와 천정을 향하여 량 팔을 벌리고 부르짖었다。

—저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거요? 당신은 미쳤구려…

—여보세요 미안하지만 당신의 그 말은 바로 내가 당신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말 했다。

—쓸데 없는 말 마오! 당신의 저 우에는 무엇이 있소?

—거기에는 지붕이 있지요 여보세요 그런데 좀 진정해서…

—그렇게 모른척 하지 마오。더 높은데 말이요!

—그 곳에는 하늘이 있지요— 대답했다。

—제기랄 왜 당신네 지붕에는 붉은 기가 있소? 빨간! 정말 이것은… 정말이것은 빨갱이 선동이요! —폭동의 호소요!

—여보세요— 나는 대답했다。—당신은 확실히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요。이 기는벌써 17년이나 띄여온 것인데 일기가 나쁜 때면 항상 내 거는 전통적인 신호입니다。 애들도 이 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이 기가 띄워지면 거리에서 쓸데 없이 빈둥빈둥 하지 말고 학교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아무도 이 점에 대해서 반미 행동으로 나를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당신은 일기에 빙자해서 나에게 거짓 말을 하는구려 당신이 일기를 좌우하려는가? 당신은 앞으로 나쁜 일기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될꺼요…

처음에 나는 우스웠다。 그러나 나를 곧 반미 행동 조사 위원회로 호출한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다。 우리들이 붉은 기를 더는 띄우지 않았다는 것은 말할 여지도 없다。 기의 빛갈을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하고 사흘째나 고생했다。 무지개의 일곱 빛갈을 전부 골라 보았다。 이러저러 죄다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기를 띄우는 대신에 빨갱이 선동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우리 국회 위원들 중 어느 한 사람의 커다란 초상화를 위험의 신호로서 내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주 애국적이다。 그러면 좋은 경고로 될 터이니까…»

끄로꼬질 그・유리예브

"승냥이와" "사슴"

승냥이는 사슴의 등에 뛰여 올라
잇발로 목을 물었다
사슴은 죽을 힘 다하여 내달렸다
그는 죽음이 가까와 옴을 깨닫고
온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그대로 승냥이를 뿌리치며 애썼다
그러나 승냥이는 사슴의 옆구리에
사나운 발톱을 박고 조롱했다
『헤, 헤! 바보 같으니? 안될걸!
공연한 반항이란 말이야!
나는 정직하고 착하다
나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자
너의 피를 2됫따씩
날마다 나에게 주기로
형제처럼 조약을 맺자
우리들 사이엔 이런 조건 밑에
영구한 친선과 동맹이 맺어지리라
그러나 네가 이 틀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배신 행위로 여길테다!』

여기서 사슴은 공포에 사로 잡혔다
그래서 그는 담판을 시작했다
크고 가지 많은 뿔로
날랜 사슴은 힘을 모두어
렴치없고 잔인한 승냥이를
단숨에 떠받아 눕힐 수 있으련만

이런 불행을 이런 착한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
승냥이를 앞에서 겁내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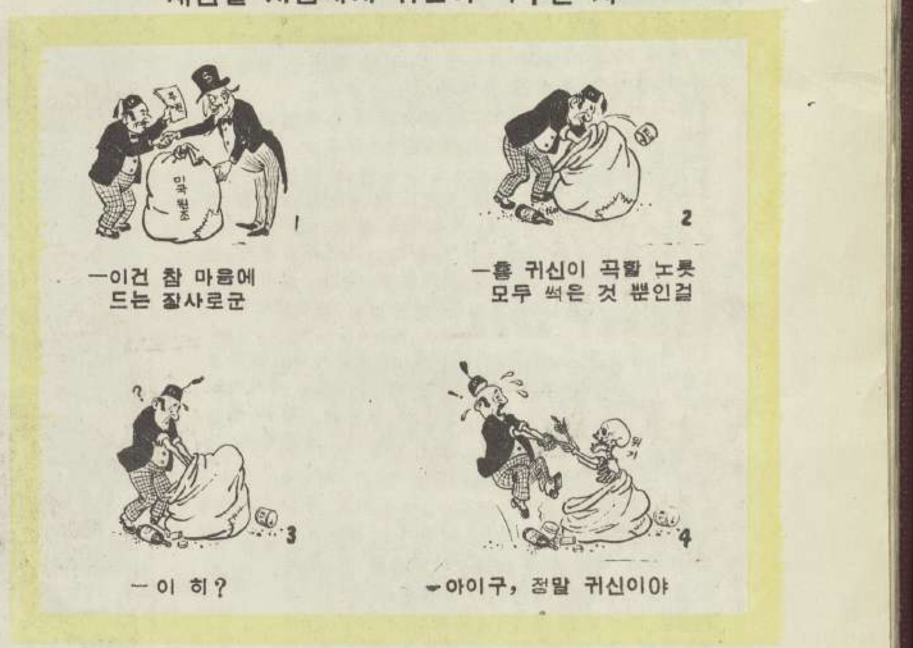
불가리야 알렉싼드르가또부
(한동신 역)

국제유모어 소개

漫画 — 중국 "만화"

중국 풍자 만화 잡지 "만화" 1956. 1월호에서 전재
황 먹위 그림

재난을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자



1 —이건 참 마음에 드는 장사로군
2 —흥 귀신이 곡할 노릇 모두 썩은 것 뿐인걸
3 —이 히?
4 —아이구, 정말 귀신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미국 원조"를 받아 들이면 녹아 난다, 토이기가 그의 한 실례다。

Szpilki — 파란 "쉬삘끼"

파란 풍자 만화 잡지 "쉬삘끼" 1956. 4호에서 전재
올리우슈・뿌할쓰끼 그림

통계에 의하면 북미 합중국에서는 평균 매 15초마다 범죄 사건이 발생되고 있다。

미국제 시계

일본 인민은 미군의 군사 기지를 반대
…발에 못이 박혔으니 어떻게 행군하노

신탁 통치령에서의 미국 수소탄 시험을 인도 정부는 국제 재판소에 제소
…이크 체면도 위신도 다 틀렸다

중 근동 인민들은 바그다드 조약을 반대
…걸음이 빠른만큼 이마만 더 깨졌군

…아이구! 쥐구멍도 없으니 여기에나 숨어보자

장진광 그림

『요지음 관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오?』정평군 관개 공사 지도 위원회 위원장 김 기남 동무는 방금 관개 수리 부장을 불러서 물었다.

『네… 저도 요지음에는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아서…』

『아 그럼 통계와 보고도 안 받았소?』

『그야 받았지요…』

『그럼 됐소! 빨리 동원 인원수와 작업 실적을 알려주오』그는 상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 중이였다.

부장은 서류 뭉텅이를 뒤적인다. 그런데 동원 인원수는 지난달 보다 30%나 저하되고 작업 실적도 떨어졌다.『에? 왜 이렇게 락후하우? 야단났는데…』위원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빨리 각 리에 동원 지시서를 발송합시다. 그리고 비고란에다 단단히 써 넣읍시다』위원장은 지시서에 자기의 큼직한 도장을 찍은 후에야 담배를 피워 물고 연기를 훅— 내여 뿜는다. 지시서는 각 공사장과 각 리에 시달되였다.

× × ×

관개 공사장 부평 양수장에서는…

『곡괭이와 삽 20개』이러한 정도로 작업 조건을 지어 주어서야 어떻게 일하나?』동원된 농민들은 입을 벌리였다. 그들은 작업에 착수했다.

동원된 농민들은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부평리에서는 또 안나왔군…』

『거게서는 어제도 대낮에 공사에 동원되지 않고 회의만 하고 있었다네…』

『뭐?!』그들은 어처구니 없어 말이 더 안나갔다.

기실 부평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리 재설 동무는 관개 공사에 로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처음에 민청원들만 동원시켰다. 그리고는 그도 군 관개 공사 지도 위원회를 본땄는지 공사장에는 한번도 안나가 보고 사무실에서 동원 통계만 잡고 있었다.

그리하여 리 내에는 이 관개 공사는 민청원들만 동원되는 공사인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였다.

그런데 —동원되였던 민청원들을 교대하고 새로 공사장에 동원시켜야 할텐데…— 동원 사업은 결국 흐지부지 되였으나 위원장 리 재설 동무는 어떻게 할 재간이 없었다. 또한 영농 준비 사업은…

『아직 바깔 날씨가 쌀쌀하여 좀 날이 풀린 다음에 합시다』라고 하는 몇몇 농민들의 말이 리 재설 동무에게는 그럴듯 하게 들렸다. 그래 그는 춘경기가 아직 멀었는데 그사이 밀리우기만 하던 회의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그래 부평리에서는 요지음 회의가 그냥 계속됐다. 현물세 판정 협의회며 선동원 세미날 등… 3월의 아침 햇살이 리 인민 위원회 유리창을 곱게 물들일 때까지 계속되였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리에서도 더러있었다.

관개 공사는 영농 준비 사업과 함께 지금 이 리 사업에서 당면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할 일들을 안하고 저녁에 하여도 될 회의들을 대낮에 하니 코 막고 답답한 노릇…

또한 이는 부평리에만 잘못이 있다고 볼까? 이런 웃지 못할 일이 리에서 벌어져도 알지 못하고 현지 지도를 전혀 안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덮어놓고 지도서만 훌훌 날려 보내면 사업이 다 되는 줄로 아는 군 관개 공사 지도 위원회…

결국 비슷비슷하고 다르다면 개구리와 올챙이만한 차이가 있는 그것이 그것…

× × ×

관개 공사장들에서는 여전히 동원률이 낮아지고 작업 실적이 오르지 않았다.

군 관개 공사 지도 위원회 위원장은 급히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안건은 로력 동원에 대한 문제였다.

회의—그보다도 현지에 나가 지도를 함이 성과가 못하지는 않을텐데 그들은 회의를 했다.

그들도 인제는 춘경기를 앞 두고 몽리 구역 내에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사무실에서만 지도해서는 안되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아닌가. 안창수

누구 탓인가?

—밀어라! 끌어라! 추겨라! 어서 따라가자!
—그런데 그 보따리를 내려 놓아야 겠수다

홍종호 그림

대부분의 기업소들에서는 1.4분기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소 지도 일군들은 아직도 무책임한 주먹치기 사업 방법으로 인하여 락후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가 마지막 판에야 덮어 놓고 몰아치는 관료주의적 경향이 있다.

단연히 퇴치

장진팡 그림

"림 화, 리 태준, 김 남천 도당의 반 혁명 문학 활동의 리행은 박 헌영, 리 승엽 미 간첩 도당의 음흉한『문화 로선』의 결가지로 나타났으며 그 근저에는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 문화 정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봄날의 하루가 1년 농사를 결정한다는 데 일부 농촌들에서는 파종기에 들어와서도 회의만 거듭하느라고 파종 시기를 놓치고 있다.

백인균 그림

산림 자원은 조국의 귀중한 부원이건만…

실제 행동은 란벌

…………

빈 말공부로써 관리 보호 사업 백인균 그림

일부 림산 부문 일군들이 목전 생산만을 쉬운 방법으로 해 치우려는 데서 생림목들이 되는대로 란도벌되고 있으며 한편 보호 관리 사업의 부주의로 인한 상처의 회복은 많은 로력과 재정을 들이면서도 오랜 기일을 요하게 한다.

탐조등

△ 너무나 빈번히

홀동 광산 지배인 동 봉통 동무는 큼직한 책이라도 저술해 내려는 모양— 매일 같이 종이에 글을 쓰고 또 썼다.

하루에도 두번 세번 혹은 네번— 지배인 명령 지배인 지시를 쓰고 또 썼다. 흥이 돋치면 기왕에 써냈던 지시를 다시 쓰기도 하고— 그리하여 1년 동안에 적으만치 842건의 명령 지시를 써냈다. 그중에는 수행되지 못한 명령 지시만도 89건 후에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명령 지시가 또한 13건—

지배인의 이런 빈번한 명령 지시를 그 하부 일군들도 본받은 모양—

착암공 김 봉수 동무에게도 매일 같이 새로운 지시가 떨어졌다. 오늘은 채광을 해라, 다음날엔 채준 작업을 해라, 또 그다음날엔 굴진을 해라, 그다음엔 파석, 또 그다음엔 물땅크 굴착 등등등… 김 봉수 동무는 9월 한달 동안에만도 십 여 곳이나 작업 장소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서도 그런 로동자들의 생산 의욕이 저하되고 작업 규률이 해이되여 생산에 지장을 주고 있는 사실을 보고는 영문 모를 일이라고 고개만 설레설레—

△ 움직이지 않아서

명령 지시가 너무나 활발히 오고가는 동안 분주히 오르내려야 할 갱내 승강기는 해가 바뀌여도 한자리에 서 있다. 사층집 오층집을 한번 오르내리기에도 숨이 가쁘고 다리가 로곤한 법인데 그보다는 십배나 되는 220메터를 사다리를 타고 매일 오르내려야 하는 갱내 일군들의 정력 랑비는 얼마나 되겠는가?! 이 정력을 생산에 돌리면 생산이 얼마나 더 제고될지 모를리 없건만, 간부들이 갱내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류행하는 리유 중의 하나가 여기에도 있다는걸 모를리 없건만, 세월은 가도 승강기는 서 있고 서 있는 승강기에 동록만 쓸듯이 이래서 저래서 하고 구실만 늘어간다.

이 광산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도급제를 들 수 있다. 도급제 참가률은 전체로 보아 46%— 그나마도 그 %에는 다음과 같은『도급제』도 포함되여 있다.

삭도 직장에서는 반도급제를 실시했는데 반 내에서는 150%로 초과 수행한 동무나 50%로 미달한 자나 한결 같이 임금을 분배한다.

임금의 평균주의는 여기서는 류행인 모양 —수리과 뽐프공 김 유봉 동무는 15년 동안이나 기계 운전 경험이 있건만 어제 오늘 들어온 신입 로동자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5급공.

△ 자만 자족

평양시 북구역 휴암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모두가 회축벼룩—

지난 해에 12호의 빈농들로 조직된 이 조합은 훌륭한 수확을 거두었다. 알곡 분배도 많이 받았고 현금 수입도 많았다. 분배가 끝나자 마을 개인농들이 앞을 다투어 너도 나도 새로 가입 신청을 해서 사십 여 호가 망라되였다.

그래서 모든 일이 모두 잘되여 나간다고 만족하여 회축벼룩—

이렇게 기뻐만 하노라기에 부업 생산을 조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동안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놀며 지냈다.

영농 준비도 덮어놓고 그저 잘된다고만 자만 자족하고 있다. 호수는 작년보다 3배 반으로 늘었는데 퇴비며 구비는 작년보다 배도 채 못되건만 작년보다는 많다고 덮어놓고 자만 자족.

△ 눈이 어두워

8·25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김 승각은 조합의 당면 목표를 알곡 증산에 둘 대신에 우선 부업 경리로 한 밑천 잡아 보겠다는 생각에만 눈이 어두워 숱한 량곡을 주고 정미 기계부터 사들였다.

그런데 농기구나 역축을 구입하는 등 영농상 꼭 필요한 것들도 뒤로 미뤄가며 사들인 이 정미 기계는 그나마도 돌릴 수가 없었다. 장사에만 눈이 어두워 고장나서 못쓰게 된 정미 기계라는 것도 모르고 샀던 것이다.

△ 되돌아간 지하 자원

강선 제강소 사택 공사에 있은 새로운『발명』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었으나 사택들에는 온돌을 놓지 못해서 사람이 들 수 없었다. 온석이 없었다.

『온석이 빨리 와야 온돌을 놓겠습니다』하고 담당 로동자들이 제의할 때마다

『념려 마오. 강동 종합 공장과 계약을 했으니까…』하고 대답한다.

강동 종합 공장에서는 온석을 생산은 했으나 애석하게도 온석에는 발이 없었고 강선 제강소에서는 운반해 가지 않았다. 그러던 끝에 일찌기 전례를 볼 수 없었던『발명품』이 나왔다. 선철로 온석을 부어낸 것이다. 이『온석 대용품』은 6천 여 매나『대량 생산』되여 50동의 구들에 깔렸고 1천 8백 여 톤의 선철이 소요되였다.

그리하여 분초를 다투는 복구 건설을 위해 분초를 아끼는 로동자들의 땀의 열매로 생산되였던 선철은 다시금 지하 자원의 신세로 되돌아가서 흙속에 한가로이 누어 있다.

△ 쉽게 쓴 책

독자들은 쉽게 쓴 책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어떤 책의 필자는 자기가 쓴 책이 읽기 까다롭고 재미가 없다는 평을 인민들로부터 듣고 이상한 일이라고 고개를 빗꼰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자기가 그 책을 쓸 때 그 얼마나 쉽게 썼는가!

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독자들이 요구하는건 쓰기 쉽게 쓴 책이 아니라 리해하기 쉬운 책이라는 것을 그리고 리해하기 쉽게 쓰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수됐다

최영근 그림

—부장 동무! 이것을 좀 보수해 주시요
—…

—빨리 고쳐야 겠습니다
—….

—….
—이제 됐군

기술 부장 안 지석 동무가 사업하는 기업소에서는 크레잉에 대한 보수 사업을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써 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다.

로력랑비의 이모 저모

광차냐? 수차냐?

『여보게 이게 수차인가?』
『아닐세 광차야』
『물 실었는 데도 광차야?』
『암 그래도 광차지』『이사람 탄을 실으면 탄차고 광석을 실으면 광차고 물을 실으면 수차지… 광차라고 따루 있나?』

서흥 광산에서는 탐광 굴진을 할 때에 밑바닥에서 나는 물을 퍼냄에 있어서 一 관리 일군들이 뽐프를 보장 안해 주었다。 그래 로동자들은 광차에 물을 퍼담아 두 사람씩 달려붙어 밀고 올라오니 그 로력이 얼마나 랑비될까? 그바람에 하루에 12명씩 로력을 더 들여가며 수 많은 광차가 『수차』가 되였다고…

『로력 절약』

검덕 광산에서는 로력을 절약하기 위해 모든 사업에서 특별한 관심을 돌린다。 그래 그들은 발파시에 연기를 빼는 절산갱을 만드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리유 밑에 만들지 않았다。 물론 절산갱을 만들자면 로력이 많이 든다。

그런데 발파가 끝난 후 로동자들이 바깥에서…
『여봐 빨리 들어가 일하자우』
『이사람 정신 없군… 그 연기가 빠지자면 아마 두 시간쯤 기다려야 할걸…』
『그럼 로력을 절약하기 위해 절산갱을 만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로력 랑비가 아닌가?』
『그래도 가재미처럼 한쪽만 보는 친구들은 「절약」이라고 한다네…』

『기름 구멍』

『이 구멍이 아래로 뚫렸으니 기름을 주는 구멍이 아니라 기름을 뽑는 구멍인가봐』
『아니야 그건 분명히 기름 구멍일세…』
『이사람 기름 구멍을 아래로 뚫고 어떻게 기름을 주는가?』

기실 화학 공업성 산하 유 일룡 동지가 지도하는 공장 설계 일군들은 벨트 꼼뻬야를 설계함에 있어서 손이 돌아가는대로 아무데나 구멍을 뚫어 기름 구멍을 아래로 뚫게 했다。 그래 주물공들은 설계대로 주물하고 조립공들은 조립하고 마지막 시운전 할 때에야 발견되여 다시 하게 되였으니 결국 4공수면 될 일에 130공수의 로력을 드리였다고…

『급한 병』

락연 광산에서는 모든 일들을 급하게 한다。 생산도 급히 작업 조건들도 급히… 그런데 이 광산 지도 일군들이 급하게란 말을 입버릇처럼 웨칠 때마다 광석 운반공들의 입에서는 정말 숨이 차 급하기 짝없다。

그것은 다름아닌 갱도의 경사를 워낙 규정에는 100메터의 거리에 1메터가 높아야 하겠는데 3메터씩하여 경사를 『급하게』 했다。 그래 운반공들은 워낙 한사람이면 될걸 두사람씩 달려 붙어 이 『급한』 경사로 광차를 밀고 올라 오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게 되고 또 내려갈 때에는 부레끼를 잡느라고 정말 숨이 『급하기』 짝없다고…

『무궤도 광차』

『레루는 왜 놓는가?』
『광차가 다니자면 레루가 있어야지』
『광차는 레루 우에만 다니나?』
『그렇지』
『레루 우로 다니지 않는 광차는 없나?』
『모든 시설이 발달되면 무궤도 광차가 다닐런지 모르지…』
『그럼 우리는 퍽 발달 안된 「무궤도 광차」를 밀구 있군…』

광천 광산에서는 레루를 보수하지 않고 궤도에 흙이 차고 돌이 끼워 여름에는 광차가 땅 우로 구을고 겨울에는 어름 우로 다니는 『무궤도 광차』를 사용… 그래 한사람이 밀걸 세사람씩 민다。

엎친데 덮치기…

강선 제강소에서는 이미 계획된 950메터의 철도 인입선 공사를 한다 한다 하면서 밀우다가 안했다。

그후 제2호 로가 복구되자 대량적으로 들어오는 기자재를 제때에 하차할 수 없어 생산에 지장이 있는가하면 엎친데 덮치기로 철도성에서는 6백 여 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해 왔다。

그래 제강소에서는 엎친데 덮친 이 두통거리를 면할 응급 수단으로 위약금이나 물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9백 여 톤의 기자재들을 목적지 아닌 역 주변에 되는대로 하차시켰다。 그런데 결국 3천 여 공수의 로력과 이를 운반하자니 50 여 만원의 운임을 또 물게 되여 이중 삼중으로 엎친데 덮치기만 했다。

록음실

자기 욕심 차리기에

—요지음 근로자들의 부양 가족들이 계속 직장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그래 림 동무는 아주머니를 그냥 집에다 가두어 두려는가?
—글세…
—글세라니 왜 아주머니가 나가려지 않나?
—그런 것도 아니지
—지금 우리 집 사람도 직장에 나가는데 퍽 재미 있두만 그래
—그러나 생각 좀 해 보게 집구석에 안해가 있어야지 불편한 때가 많아서…
—자넨 남녀 평등권에 대해서 그럴듯이 연설은 잘 하던만 욕심 차리는걸 보니 말뿐이였군 그래

1학년생의 진담

—얘 학수야 어서 세수를 하렴오나
—일없어…
—선생님이 손발을 씻고 오라고 하지 않던?
—날마다 손발을 잘 씻고 오라고 하지요 뭐…
—그러면 선생님이 하라는대로 해야지
—엄마도 참 일 없다는 데도 그래요…
—두고 보렴 이제 너의 성적부에는 몸이 더러운 학생이라고 적히게 될 것이니…
—그럼 우리 선생님 성적부에도 그렇게 적어야지 뭐

학수의 이 말에는 일리가 있다。 인민들의 지성으로 말끔히 복구 건설된 학교 건물에 대하여 교원들의 관리 사업이 철저해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천정은 끄슬려 검으틱틱하고 종이 쪼박은 사방에 히끗히끗… 유리창들은 세수 안한 학생들의 얼굴마냥 얼룩덜룩… 위생에 주의하라고 써 붙인 구호도 점점이 너덜거려 글자가 보일락 말락… 신포 련호 인민 학교 교원들은 위생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말로는 강조하면서도 교원들 자신이 이렇게 실천을 하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말을 학생들이 들은척 만척 하는 것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지대가 나빠서

식당문을 열고 손님 한분이 기웃이 들여다 보며 물었다。
—영업을 합니까?
—네!
식당안을 두리번 거리며 살펴 보던 손님은 그냥 서서 망서리다가 나가 버린다。
—참 조화네 영업을 한다는 데도 왜 나갈까?
—다른 식당은 만원인데 여기는 지대가 나빠서 그래…
이 식당 위생원들의 말이다。

그러나 식탁 우에 흩어져 있는 밥 찌꺼기와 뿌옇게 쌓인 먼지며 어데를 보나 너저분한 함흥 성천강 식당 안을 본 손님들로선 그냥 돌아설 수 밖에…

위생원들은 손님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머리를 갸웃거리나 사실은 다른 식당과 같이 이 식당도 깨끗이만 한다면 손님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 오렸만…

무책임도 가지가지

신포군 배전부 일군들은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정전 사고를 잘 일으킨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이런 저런 구실을 말한다。

새 해에 들어와서만 보더라도 35일 동안에 정전 회수는 무려 70번이나 된다。

이러고 보니 그들의 구실도 70번은 남아될 것이 뻔하다。

그런데 한편…

함흥시 전기 부문 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인하여 함흥시 인민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는 한낮에도 무수한 전등불이 켜져 있다。 물론 밤중의 불야성이야 보기도 좋지만 글세 아무리 전력이 풍부할지라도 대낮의 "불야성"은 무슨 멋인지?

장 필 순

애기는 컸는데…

1954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착수한 신포 수산 전문 학교는 수산성 일부 일군들이 제때에 자재를 보장 안해 줌으로 해서 3년째인 1956년에 들어와서도 완공되지 않고 있다。

안창수 그림

송용남 그림

병욱 동무의 결혼 전과 그 후

아직도 일부 남성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봉건적 사상 잔재로 말미암아 일부 녀성들이 가정에 얽매여 사회 활동에 적극 진출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적지 않다。

—복득씨가 사회 활동하는 녀성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 그대에게 마음을 빼았기지 않았수…

—나의 의사를 무시하고 당신이 사회 진출한다는 데는 나는 정이 떨어졌단 말이요

"활살" 현상 문예 작품 입상자 발표

(작품명)	(작자)
1등 — 정치만화	
광명앞에 암흑은 사라진다(외2건)	리춘엽(평록시 신양동)
〃 련속만화	
로력은 행복이다	림옥철(평북 신곡 광산)
2등 — 정치만화	
전기 문제	차광주(국립종합인쇄소)
정연한 체계(외1건)	손동진(내각 수매국)
〃 유모어만화	
돌돌이와 어머니(외2건)	박춘삼
3등 — 정치만화	
재미나는 고을에 범이 난다(외1건)	최윤식(함북 호곡 제재 공장)
또하나의 랑비 현상(외2건)	홍경선(평남 강서 제3중학교)
리 승만이 비져낸 남반부의 특산품(외2건)	김경진(평양시 제3중학교)
가작 — 정치만화	
리 승만의 운명	양룡덕(조선인민군대)
오지리의 독립을 침범하는 미영 제국주의자들(외1건)	김인식(함북일보사)
태양은 끌수 없다	정도유(조선 인민군대)
미국식 통치	한갑룡(함남 오로군 기상리)

(작품명)	(작자)
2등 — 만 문	
선결성에 대한 나의 변증	김몽주(조선 인민군대)
"니까" 병과 치료방법	마 웅(평양시 대성건설사업소)
3등 — 소 설	
진주 목걸이	한계홍(평양시)
꿀 동 품	리능영(평양시)
될손한 아버지	최경희(평양시 조쏘 중앙위원회)
〃 펠레똔	
청맹관이	권창진(평양시)
황소의 하소연	신국웅(황남 은률군 운성리)
가짜 통계	방창락(과학원)
가작 — 시	
그대로는 볼수없는 거룩한 사람	박송주(함남 북청군 인민 생활 생산 편의 협동 조합)
깨여지는 압제자의 환상	송원덕(함흥시 치마동)
어떤 벗이 제1 좋은가	김정현(조선 인민군대)
건달꾼	최경선(원산시 강원도 송배전부)
오직 인민의 복무자이니까	전규현(신의주시 인민 위원회)
쥐의 이야기	김준삼(평양시 종합 예술 학교)

이 상

"활살" 현상 응모 작품 심사 위원회

지방 벽보들에서

준비 없이 회의를 시작한 데서…

의견이 있소

(신포 수산 사업소 조 용 진)

함흥시 상업 관리소의 벽보는 제때에 발간되지 않고 있다。

—저 봉사는 왜 다섯달씩 저 모양일까?
—아마 벽보 주필이 눈먼 봉사인게지!

(함흥견직 리 주 건)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만화 공작에 대하여

공장, 기업소 및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발행되는 직장 신문 또는 벽보들에 점차 풍자성 있는 그림을 많이 배합시키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내용상 무미하고 형식상 조잡스럽기만 한 직장 신문 또는 벽보들도 있음에 비추어 본 편집부는 이에 대하여 보고 느낀바 몇가지 의견을 내놓으면서 참고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것은 우선 내용에서 볼 때 중앙 및 지방에서 발간되는 신문, 잡지들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또 취급할만한 범위가 크면서도 일반성을 띈 문제들을 그것도 장황한 론설적인 글만으로 직장 신문 또는 벽보의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자체 실정에 결부되는 현실적이면서도 긴급히 제기되는 문제들을 극히 형식적으로 취급하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런 데로부터 자기 사업들에 대한 보다 실제적이며 고무적인 것이 못되며 따라서 일군들로 하여금 "재미없다" 하고 무관심한 경향에 흐르고 말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문제는 "이번에는 무엇이?" 하고 직장 신문 또는 벽보들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함께 일상적인 흥미를 갖도록 교양적이면서도 선동적 자극을 주는 방향에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양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풍자성 있는 글과 함께 만화로 형상한 그림은 누구에게나 인상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실효적 의의와 함께 내용상 무미건조성도 퇴치되리라고 보아진다。 또한 형식면에서도 만화가 배합됨으로써 더욱 다양한 직관적 가치를 제고하게 되리라고 보아진다。 물론 풍자성 있는 글이나 특히는 만화를 배합시킨다는 문제는 기교적 면에서만도 용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직장 신문 또는 벽보들에서 비교적 흥미 있는 컬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예술적 재능과 적극적인 창작적 의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점차 풍자성 있는 내용과 기교를 갖춘 만화를 많이 게재할 수 있으리라고 보아진다。 따라서 만화가 가지는 풍자적 예리성으로 하여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로서의 역할을 놓고 있는 데서 직장 신문 또는 벽보들의 선전 선동자적 역할도 제고되리라고 본다。

이런 견지에서 본 편집부는 벽보에서 만화를 취급함에 있어서 참고될만한 몇가지 문제들을 지난해 8월호부터 수차에 걸쳐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에 들어서면서도 계속 직장 신문 또는 벽보들에서 취급되고 있는 우수한 만화를 소개하는 한편 만화 창작에서 참고될만한 자료들도 게재하여 왔다。

앞으로도 본 편집부는 가능한 방법을 다하여 독자들 특히는 공장, 기업소 및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직장 신문 또는 벽보 공작을 하는 동무들과의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만화를 취급하는 데 방조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겠다。

(편집부)

편집 위원 장 진 광(책임 주필) 박 무 백 광 호 서 만 일 신 불 출 리 갑 기 정 현 웅
발행소 활살(시사 만화 잡지)사 인쇄 1956. 3. 10 ㄱ—40063
인쇄소 국립 종합 인쇄소 발행 1956. 3. 15 값(50원)

규탄하자!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파괴를 책동하는 미제를

도적놈이 도적이라 한다

장진광 그림